



광주은행-목포해양대, 해양인재 발굴 협력

광주은행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31일 목포해양대에서 '해양인재 발굴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과 목포해양대는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해양인재 발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지역 발전 혁신을 위한 공동 대응 △인재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동전략 기획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광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수한 해양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나주시-전남신보, 소상공인 지원 협약

나주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지난달 27일 '2025년 나주시 대출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나주시는 전남신보에 2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보는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대출취약 소상공인에게 총 20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전남신보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신용자(신용평점 350점~779점), 저소득자(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청년(만18세~만45세) 사업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상향(85%→100%)해 금융회사 적용 금리를 낮추고(0.5%~1%p)고 보증수수료(평균 1.1%→고정 0.8%)도 인하한다. 나다운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광산구 청년 취업멘토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지역사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광주본부를 탐방하고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지난 2023년부터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해온 국민연금 기관탐방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연금 개혁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 공단 채용제도에 대한 설명과 취업멘토링 시간을 통해 최근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취업수기를 발표하며 직장 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설명진 광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단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다운 기자

황의창 교수, 美 '비뇨의학 교과서' 주요저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황의창(사진) 교수가 4월 발간되는 미국 비뇨의학 교과서 'Campbell-Walsh-Urology (캠벨-월시-웨인 비뇨의학) 13th edition'에 주요저자로 참여했다. 한국 의사가 주요 저자로 참여한 경우는 황의창 교수가 최하다.

31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Campbell-Walsh-Urology'는 세계적으로 비뇨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포괄적인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

황 교수는 이번 편찬 작업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인 신장암 파트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의학과 허숙희 교수, 병리과 김성순 교수의 도움을 받아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의 영상 및 병리 자료를 참고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 비뇨의학 교과서의 신장암 부분 저자로도 참여했다.

황 교수는 현재까지 200여 편의 비뇨기 중앙 관련 SCI 국제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와 집필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GRADE 네트워크 및 대한근거기반의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근거기반의학의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근거중심의학의 대표 국제저명 학술지에 소개되며 포스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이 발표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선정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도심국기습지 '장록습지' 정화 활동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제1호 도심 국기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광산구 장록습지에서 '민관 합동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정화활동에는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를 비롯해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등에서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황룡강을 따라가며 강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광산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 습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장록습지 정화활동에 1384명이 참가해 21톤을, 2024년에는 840명 7.6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민관 합동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이 기자

백희조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백희조(사진) 교수가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2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백 교수는 예방과 진단, 진료, 연구 등을 통해 국가암관리사업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아청소년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백 교수는, 특성에 맞는 암 관리사업 추진과 암 예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소아청소년암 완화의료사업'의 책임자를 맡아 소아청소년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24년부터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호남권역 지역거점병원 책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내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에게 '진단-치료-치료종료-관리'로 완결되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맡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꿈으로 만드는 희망백일장',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 완치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백 교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는 강도가 높고 치료 기간이 길어 가족의 돌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완치 후 학교나 사회로의 정상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과 지속적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수완 롯데아울렛-광산구, 수완호수공원 환경개선 협력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이 광산구청과 함께 수완호수공원을 더욱 쾌적한 시민 쉼터로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사진)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지난달 28일 광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광산구청과 수완호수공원 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중현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참석해 지역민의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지역민의 수완호수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완호수공원을 편한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기적 간담회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원 환경 개선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지난 2018년부터 수완호수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 어린이 환경미세대회 광주권 행사도 지역민 편의를 위해 수완호수공원에서 매년 펼쳐오고 있다.

최중현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은 "지자체와 함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김수현 "故 김세론과 미성년 교제 사실 아냐"

배우 김수현(사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세상을 떠난 김세론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김세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



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송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눈물을 흘리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생활 폭로에 대한 불안감이 털어났다.

그는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고 울먹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다.

그간 소송사에서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김수현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임영웅, 산불피해 4억 기부... '영웅시대' 이름으로

가수 임영웅(사진)이 울산·경북·경남 등지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4억원을 기부했다.

3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달 28일 이 기관에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액은 임영웅이 3억원,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1억원을 함께 보태 이뤄졌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영웅은 "산불로 인해 일상을 잃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가수와 광고 모델로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은 그 명성에 걸맞은 '선한 영향력'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웅과 소속사가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21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울진·강원 삼척 대형 산불 피해 지원 △집중호우 피해 긴급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021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기부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